

1.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아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 신년감사주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
고 예배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3. 주의만찬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만찬이 있겠습니다.

4. 아침묵상 영상

내일 1월 2일(월)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유형선 목사의 아침묵
상”이 성도님들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방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업로
드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루도 빼먹지 마시고 매일 묵상하시고 신앙생활
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5. 아침묵상 활용 가이드

1. 조용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하십시오.
2. 성경책을 펴시고 기도로 묵상을 시작하십시오.
3. 아침묵상 영상을 시청하십시오.
4. 기도로 나에게 적용하여 마무리하십시오.
5. 묵상노트를 적으시거나 기도제목을 노트에 적어 보십시오.

지난 주 (12/25)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US\$1,628.93



함께하는교회
TOGETHER COMMUNITY CHURCH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기도 Prayer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고전 11장

말씀선포 Sermon

믿음과 삶

*찬양 Praise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함께

다함께

유한진

다함께

다함께

유형선

다함께

유형선

주일대표기도

1월 8일

유영환

1월 15일

최빅토리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아침묵상

(월-토) 매일 오전 7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그분의 설교를 본받아 평생 성경말씀만 강해하겠노라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면 세계적인 강해설교자라고 인정받고 많은 후배 목회자들의 멘토가 되셨지만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실 당시만 해도 아무런 호응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워낙 고지식하신 면도 있으셨지만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목회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목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소천하시고 나서야 많은 성도들이 그가 던졌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가 참 목자요 참 설교자였다고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강단에서 오직 십자가만을 고지식하게 외쳤다고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는 단호했다고 합니다.

한번은 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난 26년 동안 웨스트민스터 강단에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충분히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할 것이 없다고 어리석게 생각한 일이 있었다. 아마 그것이 사탄이 만들어낸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조금 시작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십자가에 대한 영광스러운 메시지에는 끝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점입니다. 때로는 설교자로 강단에 선다는 것은 많은 유혹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 유혹이란 물질이나, 명예와 같은 눈에 보이는 유혹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주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들의 귀에 달콤하고 위로가 되며, 감동적인 말을 전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방에 걸려 있는 십자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설교자로,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이유와 목적을 다시 생각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갈6:14)

십자가 외에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알 사람이 없도다...